관세청 보도자료

보도시점 배포즉시 배포 2025. 6. 4.(수) 14:00

관세청, 아세안 10개국과 관세 협력 방안 모색

- 제21차 한-아세안 관세청장회의, 영상회의 형식으로 개최
- 전자원산지증명서 교환 확대, 마약밀수 합동단속, 능력배양 협력 등 논의

□ 고광효 관세청장은 6월 4일(수, 12:30) 영상회의*로 개최된 **'제21차 한-아세안 관세청장 회의'에 참석**하여 아세안 10개국** 관세당국 대표들과 주요 **협력사안**들을 **논의**했다.

* 아세안 10개국의 관세행정 최고책임자들은 브루나이에서 참여

** 라오스, 말레이시아, 미얀마, 베트남, 브루나이, 싱가포르, 인도네시아, 태국, 필리핀, 캄보디아

○ 한국과 아세안은 **지난 2005년**부터 **매년 정기적으로** 한-아세안 관세청장회의를 **개최**해 왔다.

□ 양측은 그간 **무역원활화와 국경범죄 단속에서 의미 있는 성과**를 함께 거둔 점을 높이 평가하고, 최근 전 세계적인 관세정책 변화, 공급망 재편 등 **급변하는 무역환경에 대응**하여 **상호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**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였다.

□ 이번 회의에서는 **① 한-아세안 전자원산지증명서 교환사업 추진 동향, ② 아시아-태평양 지역 마약밀수 합동단속 작전 협력, ③ 세관직원 능력배양 협력**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.

< 주요 발표내용 >

1. 한국 측 : ① 한-아세안 전자원산지증명서 교환사업 추진 동향, ② 아시아-태평양 지역 마약밀수 합동단속작전 추진 협력, ③ 한-아세안 간 세관직원 능력배양 협력

2. 아세안 측 : ① 아세안 차원의 최근 관세분야 중점추진 사업,
② 아세안의 능력배양사업 우선순위(희망 분야)

○ 먼저 한국 측은 한-아세안 **전자원산지증명서 교환시스템***(EODES) 구축에 앞서 **태국, 필리핀과 시스템을 시범 구축**하는 계획을 소개하며, 해당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**아세안 측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요청**했다.

* Electronic Origin Data Exchange System : 관세당국 간 자유무역협정(FTA) 원산지증명서 정보를 전자적으로 실시간 교환하는 시스템으로, 절차 간소화에 따라 신속 통관 및 물류비 절감 가능

- 이어서 '24년 7~8월에 시행한 **한-아세안 마약밀수 합동단속** 작전의 성과*를 공유하고, 올해 합동단속 작전을 **아시아-태평양 지역으로 확대·강화**하는 데 있어 **아세안 측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**했다.

* '24.7~8월 한-아세안 마약밀수 합동단속 실적 : 61건, 131.8kg 적발

- 마지막으로 지난 1년 동안 한국 관세청이 수행한 능력배양 사업과 향후 추진 계획을 소개하며, **아세안 측과 능력배양 협력을 더욱 강화**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.

○ 아세안 측은 **한국 관세청의 능력배양 사업**들이 **역내 관세행정 발전에 크게 기여**하고 있음에 감사의 뜻을 표하며, **한국 측이 추진 중인 여러 사업**에 대해서도 **적극 협력**할 것이라고 밝혔다.

□ 고광효 관세청장은 "**아세안 국가**들은 우리의 **주요 무역 상대**이자 **불법 마약류 차단을 위한 핵심 협력 상대**"라고 강조하며,

○ "앞으로도 한국 관세청은 보다 **원활하고 안전한 무역환경을 조성**하기 위해 **아세안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**해 나갈 계획"이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국제관세협력국 국제협력총괄과	책임자	과 장	임주연 (042-481-3210)
		담당자	사무관	김학수 (042-481-3215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OPEN 출처표시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